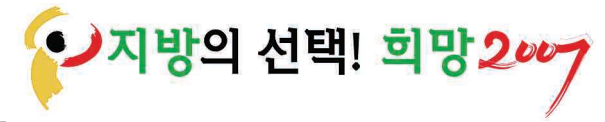


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 공동 여론조사



박 57.3% 對 손 28.1% ... 박 62.7% 對 정 20.7%

■ 대선후보 가상 대결

한나라당의 양대 주자인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 범여권에서는 전제 지지율 3~5위를 각각 차지한 손 전 지사, 정 전 의장, 이 전 총리를 각각 대입해 가상대결 지지도를 물은 결과, 한나라당에서는 이 전 시장이, 범여권에서는 손 전 지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구체적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다.
▲박근혜 vs 손학규=박 전 대표가 57.3%의 지지율로 28.1%를 기록한 손 전 지사를 29.2%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표의 여성(60.9%), 50대 이상(64.7%), 저학력층(중졸 이하 62.5%), 불교신자(67.2%), 월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63.4%)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반면 손 전 지사는 남성(33.0%), 30대(35.8%), 고학력층(대제 이상 33.2%), 화이트칼라(37.5%), 월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36.7%

칼라(25.0%), 개신교신자(24.0%)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박 전 대표는 역시 대구 80.2%, 경북 79.0%, 경남 74.6%, 부산 73.9%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정 전 의장은 광주·전남에서 49.4%대 25.6%(광주 51.4%대 26.5%, 전남 47.9%대 24.9%)로 앞섰고 전북에서도 56.7%대 23.0%의 지지율로 박 전 대표를 압도했다.
▲박근혜 vs 이해찬=박 전 대표와 정 전 의장의 가상대결 결과와 대체로 비슷했다. 박 전 대표는 62.9%의 지지율로 20.3%를 기록한 이 전 총리를 42.6%포인트 차로 압도했다. 역시 박 전 대표는 여성(65.1%), 50대 이상(69.2%), 고졸(68.1%), 가정주부(67.2%), 불교신자(71.4%) 사이에서 특별히 많은 지지층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 전 총리는 남성(23.3%), 30대(25.8%), 화이트칼라(25.5%), 개신교신자(23.5%)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박 전 대표는 역시 대구 76.7%, 경북 72.4%, 경남 71.9%, 부산 71.5% 등 영남지역에서 확고한 우위를 보였다.
▲이명박 vs 정동영=이 전 시장이 66.8%로 손 전 지사(21.2%)를 45.6%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시장은 19~29세(67.5%), 자영업자(68.7%), 월 가구소득 300만원대(67.3%) 등에서 특히 많은 지지층을 보유했다. 반면 손 전 지사는 30대(29.0%) 및 40대(25.2%), 화이트칼라(29.1%), 월 가구소득 400

이 63.8% 對 손 21.2% ... 이 66.8% 對 정 16.8%

범여권 손학규 후보가 상대적으로 경쟁력 높아

9%), 개신교신자(34.8%)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층을 확보했다. 지역별로 박 전 대표는 대구 78.2%, 경북 73.9%, 경남 70.7%, 부산 69.1% 등 영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손 전 지사는 광주·전남에서 52.6%대 28.3%(광주 57.2%대 26.7%, 전남 49.3%대 29.4%)로 앞섰으며 전북에서도 50.8%대 29.5%의 큰 지지율 차이로 박 전 대표를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 전 지사는 서울 32.2%, 인천 32.6% 등 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었다.
▲박근혜 vs 정동영=박 전 대표가 62.7%, 정 전 의장은 20.7%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박 전 대표가 42.0%포인트 차로 앞선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여성(64.9%), 50대 이상(69.9%), 고졸(67.6%), 가정주부(66.0%), 불교신자(73.2%) 사이에서 특히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반면 정 전 의장은 남성(23.9%), 30대(25.7%), 고학력층(대제 이상 23.5%), 화이트

칼라(26.4%)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폈을 때 이 전 시장은 영남뿐 아니라 수도권, 강원, 충북 등에서 60% 중반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며 확고한 우위를 보였다. 하지만 손 전 지사는 광주·전남에서 37.0%대 40.1%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에서 37.0%대 35.4%로 근소한 차이로 이 전 시장을 이겼으며 전북에서는 36.3%대 44.4%, 광주에서는 37.0%대 46.8%로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다. 또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도 손 전 지사는 28.6%대 58.6%(대전), 20.5%대 53.0%(충남)의 지지율로 이 전 시장과의 지지격차를 줄였다.
▲이명박 vs 정동영=이 전 시장이 66.8%, 정 전 의장이 16.8%의 지지율을 얻어 지지율 격차는 50.0%포인트나 됐다. 이 전 시장은 각계 각층에서 우위를 보이면서도 특히 50대 이상(70.6%), 자영업자(74.3%), 천주교 신자(73.5%) 등에서 지지층이 많았다. 반면 정 전 의장은 30대(23.7%), 화이트



칼라(20.3%)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폈을 때 이 전 시장은 영남뿐 아니라 서울에서 70%대 중반을 넘어서는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호남지역에서는 정 전 의장 우위가 접착됐다. 정 전 의장은 광주·전남지역에서 40.1%대 33.8%(광주 40.3%대 40.6%, 전남 40.0%대 29.0%)로 이 전 시장을 앞섰으며 고향인 전북에서는 49.7%대 33.4%로 이 전 시장을 압도했다.
▲이명박 vs 이해찬=이 전 총리는 범여권의 다른 후보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며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시장은 67.7%, 이 전 총리는 16.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격차는 51.6%포인트. 이 전 시장은 각계각층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인 반면, 이 전 총리는 30대(24.3%)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폈을 때 이 전 총리에서 이 전 시장은 이 전 총리를 앞섰다. 다만, 광주·전남(30.5% 대 45.0%) 전북(30.7%대 45.9%)에서 이 전 시장과 이 전 총리간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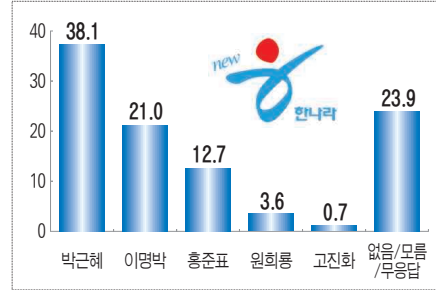
칼라(20.3%)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폈을 때 이 전 시장은 영남뿐 아니라 서울에서 70%대 중반을 넘어서는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호남지역에서는 정 전 의장 우위가 접착됐다. 정 전 의장은 광주·전남지역에서 40.1%대 33.8%(광주 40.3%대 40.6%, 전남 40.0%대 29.0%)로 이 전 시장을 앞섰으며 고향인 전북에서는 49.7%대 33.4%로 이 전 시장을 압도했다.
▲이명박 vs 이해찬=이 전 총리는 범여권의 다른 후보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며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시장은 67.7%, 이 전 총리는 16.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격차는 51.6%포인트. 이 전 시장은 각계각층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인 반면, 이 전 총리는 30대(24.3%)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폈을 때 이 전 총리에서 이 전 시장은 이 전 총리를 앞섰다. 다만, 광주·전남(30.5% 대 45.0%) 전북(30.7%대 45.9%)에서 이 전 시장과 이 전 총리간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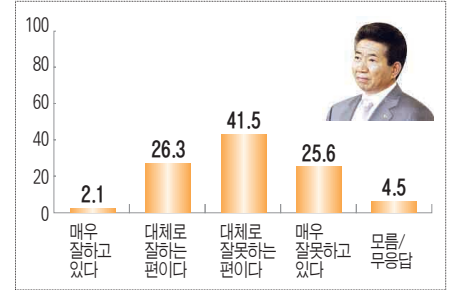
리서치 앤 리서치, 전국 3,600명 전화조사

한국지방신문협회 '제1차 대선 공동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Research & Research)에 의뢰해 지난 9~11일 사흘동안 실시됐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천600명을 유효 표본으로 추출, 구조화된 질문지와 숙달된 전문 면접원에 의한 전화조사 방식이 사용됐다. 16개 시·도별로 200~400명씩의 표본을 추출해 그 결과에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했다. 각 시·도에서의

■ 한나라당 정책토론회 누가 잘했나 (단위:%)



■ 노무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단위:%)



한나라당 정책토론회 "박근혜 후보 잘했다"

盧대통령 국정수행 67.1% 부정적 평가

■ 한나라당 정책 토론회 평가

한나라당이 '지난 8일 실시한 정책토론회에 대해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21.0%가 '잘했다'고 답했다. 정책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효과가 크지 못했음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정책토론회가 후보 정책 인지도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답에서는 65.1%가 '도움이 됐다'고 답한 반면, 32.0%만이 '도움이 안 됐다'고 답해 한나라당 후보의 정책 홍보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있었음을 보여줬다. '어느 후보의 정책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5.6%가 박 전 대표를 선택, 유권자로부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으며 이 전 시장(32.0%), 홍준표 의원(5.8%)이

■ 盧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응답자의 28.4%가 긍정적 평가를 한 반면 67.1%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는 2.1%,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라는 26.3%인 반면 '대체로 잘 못하는 편이다'라는 41.5%,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5.6%였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42.9%가 긍정적 평가, 51.0%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 같은 반응은 지난 4월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긍정적(43.7%) 평가가 부정적(41.9%) 평가를 앞서는 결과와 상반된 것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Mang-dang' (明堂) featuring '가족봉안묘원 특별분양!!' (Family Burial Site Special Sale!!). It includes a large image of the cemetery, contact information for 'www.park1004.com', and details about the '금계포란형' (Golden Field Eggplant Type) tombs. The ad highlights features like '호남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明堂!' (Located in the best location in Honam!), '현장답사 환영' (Welcome to site visits), and '선착순 배정' (First-come, first-served allocation). It also lists th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and phone numbers '1197-01-000331' and '062)521-1100, 011-666-8579'.